

참회의 눈물 (상)

이상열 (OO구치소 재소자)

하늘과 땅의 순리를 아는 지천명의 나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난시간을 돌아봅니다. 40여년의 삶들이 마치 한편의 흑백영화처럼 찰나 간에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목적 없이 살고 기준 없이 살았기에 내 마음이 마치 갈대와 같이 이 바람에도 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다 보니 어린시절부터 십 수 년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코흘리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좇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 경전도 읽고 불교 공부도 조금 하다 보니 불교를 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의 나는 부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이 부처님이고 무엇이 불교인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그저 허식과 가식으로 가득차서 부처님과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높은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그 간혹만 여기저기로 따라다니던 꼴이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묶여있는 몸으로, 구치소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곳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펜을 들었습니다.

또 나의 글이 나와 같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광명정대한 부처님의 큰 가피를 만분의 일이나마 알리고 큰 은혜 입은 벼간 마음을 가늘 길 없기에 글로써 큰 가피와 큰 가피 입음을 적고자 하나 글 솜씨 없으니 그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처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고 따뜻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8월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어리석게도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항변도 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업체가 부도 처리 되면서 밀린 임금도 갚지 못했고, 나는 부채 때문에 '사기'

지는 아픔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손이라도 잡고 안아라도 줄 텐데 수감된 죄인의 몸이라서 내손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에 하루 열두 번도 더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마음만 더욱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서 황폐해

사업체 부도로 임금 갚지 못해 '잘못'

구치소 내 법회 참석하며 마음 달래

경전 한줄 한줄 읽을때마다 참회 눈물

죄로까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와 잘못은 나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격리시켰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범법자가 되면서 우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조상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영민하던 큰 아들 녀석이, 빚쟁이들이 채무 채권 관계로 집으로 찾아와 날이면 날마다 행패와 난동을 부리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폐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유독, 첫째 아이라서 더욱 귀여워하고 믿음직스럽던 녀석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땅이 갈라

져 갈 때쯤 우연히 이곳 구치소 불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불쌍하고 소외된 수감자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날은 구공사에 계시는 정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열과 성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다면 노력한 만큼 부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하자는 생각이 스쳐



그림 · 문병성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무엇인가는 바로 나 자신과 아픈 자식,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경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천수경>과 <금강경>, <예불대참회진언>을 차례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같이 한방에서 잠을 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께 피해를 주는 것 같았기에 경만 읽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몸으로 낮에는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낮에 지치고 고된 몸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날 때는 의지하는 상념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경을 한줄한줄 읽어 가면 뜻은 고사하고 읊도 제대로 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잡념으로 10초도 정독

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잡념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은 더욱더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인지도 모를 만큼 읽고 또 읽다보니 처음에는 잘 돌아가던 혀도 차츰차츰 굳어지면서 '어' '어' 하는 소리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과 혀에는 햇바늘이 돌아서 밥도 잘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발음은 불분명하

고 시간은 더 들었지만 정신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몸도 적응하여 가고 마음 또한 변하여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을 읽다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온갖 잘못들과 원망, 후회들이 흐르는 눈물 속으로 침투되어 녹아내리고 있었습

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기록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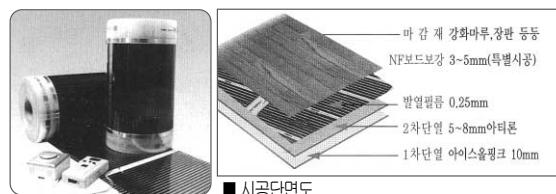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있고 전기온돌방을 생각하고있고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있으셨다면

(난방비 50% 절감)
(난방비 70% 절감)
(난방비 80% 절감)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열	도시가스	전기방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전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해도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 번 시공으로 건물수영대도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정품(미국캘리포니아주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이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서는 수행의 반란지가, 불자들이께서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장 → 임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날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번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팩스 02) 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책고개 많지 않아 인장판매 합니다.

민간처방으로 건강식품 특허받은 명광스님

우리나라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내려오는 각종 '비방(秘方)'들이 있었다. 다행히 문헌을 통해 고증되는 비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맥이 끊기기도 했다. 때로 민간 비방들은 과장돼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술'은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뒷전으로 밀려났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지 못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민중의술은 기존 치료법에 대한 한계에 함께 대체의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중의술살리기' 연합체가 조직되고 있고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경기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제도적인 확대에서도 민중의술이 그나마 전승돼오고 있는 곳이 사찰이다. 경남 창원시 북면에 있는 명성사도 이러한 사찰 중의 하나. 이곳 명광스님(47)은 우연히 민간에서 내려오는 비방을 접하고 이를 '미삼정'이라는 약제로 재현해내고 10여년 전인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상품화했다. 그 전에는 '제도권' 한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제대로 규제도 못하면서 민간에서 내려오는 처방은 여러가지 이유로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이 미삼정을 재현하게 된 이야기는 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26살 늦은 나이에 출가를 했다.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출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그는 그 후 해인사에서 5년동안 병든 스님을 간호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아픈 스님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돌아오다 그의 삶을 바꾸는 '우연한 일'을 겪게 된다.

"아픈 스님에 대해 걱정하면서 기차에서 내렸는데 한 젊은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아픈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비방이 우리 집에 있다. 전수할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찾아오라'면서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머뭇 뒤 그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경북 청도 근처의 산골집이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기차에서 만난 젊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의 부친을 소개해주었다. 나이트 부친은 처음

에는 "그런 약이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몇달에 걸쳐 그 집을 수차례 방문했고 결국 활아버지는 '비방'을 건네면서 말했다. "이름 전수할 사람이 없어 고민했는데, 스님에게 비방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부디 이 비방대로 약을 만들

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세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형편이 안좋은 사람에게는 그냥 주도록 하십시오. 그게 제가 대가없이 드리는 뜻입니다."



명광스님은 빛 바랜 종이에 적혀 있는 그 비방을 가지고 4개월여동안 약초를 찾아다니며 환(丸)으로 만들어 '미삼정'이라 이름붙였다. 한의사가 아니어서 약으로 팔 수 없었던 스님은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9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았다. 이어 동국대 생리학연구소 김철호 박사의 약효실험을 거쳐 특허를 공동신청해 3년 만인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특허받은 약효는 항종양과 간염억제, 면역증강 활성 및 당뇨병 치료

분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과대 제55병원 재활의과 이의관 씨는 "미삼정은 특히 면역증강과 함께 고흡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민간요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대체의약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며 "한국의 경우 수많은 비방들이 정통의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약이란 그 자체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용하는 이의 마음가짐"이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약을 맹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맥이 끊긴 편한 전통민간요법 중 하나를 되살린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스님은 "앞으로 민중의술살리기 단체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면 더욱 많은 민중의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광스님 HP 011-525-0718
공방 055)298-5911, 299-0921
※ 전국대리점 모집